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연내 2000억 대출 등 맞춤형 대책 공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피해구제·규제개선 등 3대 축 중심 1개월 이내 단기연체, 상환연장 포함 내년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신규공급 제도전특별자금 등 인센티브 제공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000억원의 저금리 대출자금을 이달 안에 추가로 공급한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 소상공인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해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원금·이자를 납부한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상공인 제도전특별자금' 신규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꾸려 현장 밀착형 규제를 개선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회의는 전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일정이 취소돼 이날 다시 열렸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금융지원 3중세트 추가 개선내용〉

구분	추가 개선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진공)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 중 경영애로 인정요건 완화 - 다중채무 기준: 現3→改2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보유 - 매출감소 기준: 現전기대비 10% 이상 감소→改전기대비 감소로 개선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성실상환 인센티브	·'소상공인 제도전특별자금' 연계 지원(한도 7천만원,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
	편의성 제고	·신규대상자 타겟형 홍보
저금리 대출대출 (은행→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상품으로 햇살론 등 정책보증부 대출 추가 검토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신설
	성실상환 인센티브	·'소상공인 제도전특별자금' 연계 지원(한도 7천만원,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
	편의성 제고	·채무조회 플랫폼 구축 + 대출대출 전문 영업점 지정
전환보증	추가 금융지원	·지역신보: 5~8조원 / 기술보증: 신규 2조원
	성실상환 인센티브	·최대 3천만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별보증' 신설공급

소상공인의 금융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월3일에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종합대책'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마련한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부처들과 협업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지원 3중세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3중세트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저금리 대출대출로 구성됐다.

정부는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낮추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존에는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해야 했다면 이제는 2개 이상만 돼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이 충족된다. 매출도 전기대비 감소하면 인정된다.

취약소상공인에는 추가로자금을 공급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저리대출자금은 이달안에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늘리고, 내년 1월부

터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한 거치형 대출대출(2년 거치 8년 분할상환)도 신설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별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내년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목표액은 총 10조원으로 잡았다. 앞으로는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도 원금 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생업 4대 피해(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덧글)를 뿌리 뽑기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도 운영한다.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내 일회용품컵 사용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온라인 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과도한 노쇼 피해의 대응책으로는 외식업 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 마련을 내놨다.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에서는 악의적인 리뷰·덧글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는다.

이 외에도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 내년 한시 허용,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 허용 등 현장에서 겪는 돌부리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낼 계획이다.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로 만드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은 기업으로 키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000개 기업(로컬브랜드)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로컬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지역 창작공간을 10곳에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민간의 상권기획자, 상생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중세트' 제도화를 위해 '지역상권법' 전면 개정도 착수한다.

지역주도 상권발전기금 조성 마중물 자금으로는 2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이 출자·결성해 지역상권에 투자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문제가 불거진 온누리상품권은 발행·환전체계를 손본다.

상인회를 통한 지류환전시에도 현금화 전 상품권 정보등록을 의무화해 불법 의심 거래의 환전을 원천 차단하고, 만 14세 미만 명의의 편법 구매를 막는 방안으로 구매한도 제한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옴부즈만, 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관계부처 '경제규제 혁신방안' 3대 분야 36개 주요과제 담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획재정부 등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에서 발목 잡는 경제 규제 혁신을 더욱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역동성 제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여기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중앙

회 등 기업·단체의 현장건의 300여건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 소관부처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주력·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 36개 주요 과제'가 두루 담겼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가 앞서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을 위주로 관련 방안 마련에 함께 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합동간담회를 지난 달 9일 진행한 바 있다.

우선 현장에서 지속 제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춰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

모기로 했다. 전국조합의 경우 기존에 50명이던 것을 30명(도·소매 70인→50인)으로, 지방조합은 30명을 20명(도·소매 50인→30인)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토록 했다.

또 자연석 경계석 등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제품인 석제

품의 조달 전문기관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검사실익이 낫다는 점을 고려해 석제품을 조달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먼저 현장의 기업건기에 정부가 힘을 모아 신속히 응답하고 옴부즈만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과거 중기 옴부즈만과 기재부가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시리즈 형태로 공동 마련한 바와 같이 앞으로 기재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더욱 시너지 높이고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뚜림·뚜림이 디자인 '핫팩' 편슈머 마케팅

귀뚜라미가 보일러처럼 따뜻한 열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캐릭터 핫팩으로 편슈머(Fun+Consumer) 마케팅에 나선다.

귀뚜라미는 공식 캐릭터 뚜림이와 뚜림이를 디자인한 '귀뚜라미보일러 핫팩' (사진)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귀뚜라미보일러 핫팩은 '보일러처럼 따뜻한 핫팩'이라는 콘셉트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지난 2020년 첫 선을 보인 후 2022년에는 뉴트로 감성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뚜림이'를 전면에 내세운 캐릭터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한 바 있다.

올해는 뚜림이와 여성 캐릭터 뚜림이가 함께 등장해 더욱 다채로운 겨울 분위기를 연출한다. 캐릭터 디자인은 '엄지 척 뚜림이'와 '뚜림이의 성탄 선물' 그리고 '뚜림이 뚜림이의 커피 한잔' 등 총 3종으로 구성했다.

특히, 귀뚜라미보일러 핫팩은 '변온발색'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독특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김승호 기자

벤처協, 벤처기업 일본진출 추가 지원

日 오픈이노베이션서 기업 20곳 추천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추가로 지원했다.

벤처협회는 일본 도쿄 도라노몬 힐즈에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열린 아시아 최대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행사 '이노베이션 리더스 서밋(II.S) 2024'에 국내 자문기관으로서 한국 기업 20개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매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I.S는 약 250개 글로벌 스타트업의 피칭과 진

시부스, 100여건의 대기업 리버스 피칭 및 미팅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행사에는 주요 일본 대기업 126개사와 스타트업 800여개사가 참가해 3000여건의 비즈니스 매칭이 성사됐다.

벤처협회는 이번 II.S2024에 대기업의 상담매칭 선호도가 높은 화학, 재생에너지, 탈탄소화, 스마트그리드, 반도체, 배터리, 제조, 우주항공, 모빌리티 등 일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사와 창업초기 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식품기업 수출·디지털 전환 지원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식품기업 수출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돕는다.

중진공은 5일 서울 중구 식품안전정보원에서 강석진 이사장,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식품 수출기업에

해의 주요국의 수입식품 안전기준 및 규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을 공동 발굴해 집중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사항은 ▲식품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협업체계 구축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푸드 QR 관리시스템 도입 등 식품업 디지털 전환 지원 ▲식품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정보 공유 ▲국내 식품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및 홍보 강화 등이다. /김승호 기자